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| 보도자료 |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(지면) 2026. 4. 29.(수) 조간
(인터넷) 2026. 4. 27.(월) 14:00

학성새벽시장 새벽배송 위한 상생협력 추진

- 울산중기청-중구청-학성새벽시장-센트리지 아파트 입주민 대표간 상생협약 체결(4.28(화))
-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신선 식재료를 인근 대규모 아파트에 새벽배송 할 예정

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(청장 노형석, 이하 울산중기청)은 전통시장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학성새벽시장의 새벽배송 활성화를 위해 울산 중구청(청장 권한대행 김상육)과 학성새벽시장 상인회(회장 손영한), 번영로 센트리지 아파트(1~5단지) 입주자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·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.

▶ 업무협약 일시·장소: '26. 4. 28.(화) 12:30, 학성새벽시장 협동조합 교육장

이번 협약은 학성새벽시장이 2026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새벽배송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안정적인 운영 및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.

학성새벽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새벽배송은 시장내 농축산물 등 신선 식재료를 소비자가 전용웹을 통해 자정전까지 주문하면,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인근 아파트 세대의 고객에게 배송하는 사업이다.

울산중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성새벽시장의 새벽배송이 안착될 수 있도록 ▶문광형사업과 배송인력 등 정책지원과 자문 ▶홍보와 상황 모니터링 ▶관계기관간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울산 중구청은 ▶일자리 사업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▶관내 아파트단지 등에 사업을 홍보하고, ▶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과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.

학성새벽시장 상인회는 ▶저렴하고 질 좋은 신선식품의 적기배송과 ▶1인 가구 등 수요자 기반의 다양한 상품개발 ▶공동주택과 연계한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새벽배송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.

번영로 센트리지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▶새벽배송사업 홍보와 ▶SNS 채널 가입 안내 ▶온·오프라인을 통한 전통시장 행사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.

이 외에도 각 기관은 공동으로 ▶새벽배송사업 홍보와 ▶협력사업 발굴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.

학성새벽시장은 상인들이 2017년 유통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, 디지털전통시장사업('23~'24)을 통해 온라인 판매와 배송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오고 있으며,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('26~'27)의 새벽배송을 기반으로 생활권역 밀착형 유통모델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.

특히, 시장 반경 1㎞ 이내에 센트리지아파트(약 2,600세대)를 비롯한 약 12,000세대의 아파트들이 위치해 풍부한 잠재수요를 보유하고 있고, 현재 관공서 등 B2B 배송 노하우와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어서 B2C로의 확장에도 유리할 전망이다.

울산지방청 노형석 청장은 "전통시장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학성새벽시장의 새벽배송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사업"이라며 "학성새벽시장이 가진 강점과 노하우들을 잘 활용해서 울산형 새벽배송모델로 꼭 성공시키기 바란다"고 당부했다.

<행사사진> 행사후 별도 송부 예정

담당 부서	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	책임자	과 장	윤삼석	(052-210-0040)
		담당자	팀 장	안희원	(052-210-0045)
			주무관	나단비	(052-210-0049)